

한화투자증권 9월 14일부터 매매 수수료 인하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라 매매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거래 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조치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9월 14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모든 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주식매매(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수수료율은 0.0039219%

를 인하했고, K-OTC는 0.00742%를 인하했다. (단, 협의 수수료 적용 계좌 제외)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김민수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매매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whawm.com>) 공지사항, 고객센터(☎080-851-82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